

주체적해군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히 진행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건국력사에 일찌기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며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력정우에 주체적 해군무력의 급속한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새로운 위력적실체가 출현하였다.

조선로동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 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리였다.

첫 수중핵공격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비약적으로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려는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드팀없는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시워된 잠수함 진수식은 9월 6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리병철 원수, 박정천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김명식해군대장 등 당과 정부, 군부 지도간부들의 참석하에 해군 동

해함대 지휘관, 해병들, 봉대조선소의 전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들끓는 환희와 감격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진수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하를 휘어잡으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부국강병을 위한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위대한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강철의 령장, 탁월한 인민의 령도자를 우리러 열광의 환호를 더 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들이 장장 70여성상 가없이 넓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싸워온 해군장병들의 고귀한 넋이 스며여있고 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필승불패의 상징으로 빛나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서서히 계양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해군에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이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리병철원수가 전달하였다.

(2면으로 계속)

